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우리는 이미지와 환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세계 안에, '너와 내'가 있고, '울고 그를'이 있으며, 마침내 '있고 없음'의 분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증언부인 주철주철 울고 더듬어 왔습니다. 불교의 지혜란 바로 이 근본 사실을 통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실제를 말할 수 있는가
깨달음이란, 인류의 오랜 환상을 떠나 삶의 실제(實際)와 만나는 것입니다. 아 참, 불교가 진리의 이름으로 이 '실제'를 쓴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명(無明)의 어둠이 풀러가고 세상을 투명하게, 자아의 점착을 떠나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때가 열반, 즉 자유와 불멸을 얻는 때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실제(實際)는 자아의 점착성을 떠나 있으므로 존재로도 비존재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제 앞에서는 일상적 언어와 관념이 경계와 예각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누가 눈앞에 역역한 이 적나라한 실제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사라져 버리고, 티끌 속에 우주가

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순이나 갈등 또한 발생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시간도 공간도 의미를 잃습니다.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공간의 분할과 의미는 전형적으로 인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물 사이를 가르고 분류하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서로 너무나 다른 것을 둘러보시면 짐작하실 것입니다. 나와 객상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다들 놀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노장과 불교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 구분은 사물의 성질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의견에 따른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어도 생선의 종류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신선한지 아닌지는 지나치다 싶게 섬세하게 구분합니다." 공간들은 '그 자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기에 높낮이와 낮다, 크기와 작다가 실제(實際)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화엄경>의 수수께끼 같은 언설, 선사들의 반복되는 역설이 바로 이해될 것입니다. "수미산이 겨저저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

시간도 공간도 없는 세계

시간은 인간에 의해 추상화된 것일 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간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아,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계가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수보리아,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은 사립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었고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그러나 붓다에게만 열린 길이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늘 '옛 길'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고타마 붓다 이전에 수많은 붓다가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붓다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지구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 체계에서 수많은 붓다가 또 그렇게 깨달아 그 진실을 설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엄경>이 선재동자의 구도 순례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산사의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얼굴이 바로 선지식의 광명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수많은 여러 가운데 하나이니, 스스로 보살이고 여래라는 생각의 연금술, 그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사람은 현명합니다."

"대왕이시여, 어쩌서 수목은 똑같지 않습니까. 왜 과일도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짜고,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맵고, 어떤 것은 씹을수록 어떤 것은 달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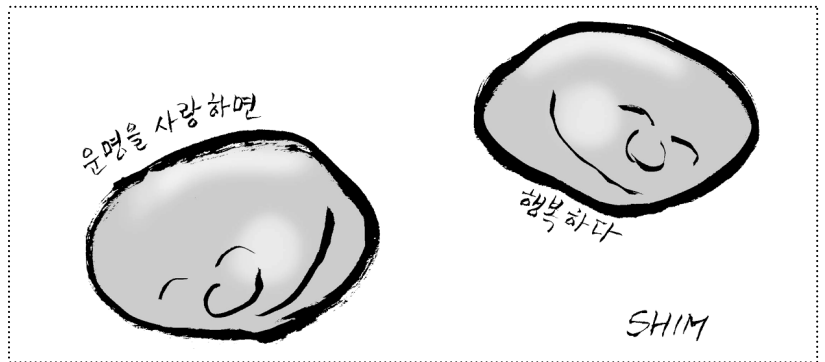
"그것은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왕이시여, 업(業)이 제각기 다르므로, 사람들은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며, 어떤 사람은 병이 많고, 어떤 사람은 무병합니다. (...) 어떤 사람은 천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현명합니다."

불교는 이 차이를 산술적으로 평균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네 운명을 사랑하라(Amor fati)"는 니체의 영웅주의를 닮았습니다.

화엄의 종장(宗匠), 법장(法藏)은 축천무후를 위해 화엄의 이치를 금사자(金獅子)로 비유해서 강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금사자장(金獅子章)>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물과 사건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다. 그들이 다른 것은 다만 형태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모두 부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다. 거죽의 모습은 좀 다른 것은 다만 우연적 차이일 뿐이고, 실제 그 모두는 크고 작고나 나뉠대로 법계(法界)의 영광과 그 환란한 무도의 주인공들입니다.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 본별(分別)의 장애물을 치워야 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의외 조건들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치지 않으면서 각자 꽃피기 시작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 깨달음은 깨달음 가운데, 가장 높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오랫동안 차려낸 공간에서 의식을 집중하여 자아나 화두를 응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평등한 금사자들
메안드로스 왕이 인간의 서로 다른 운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어쩌서 사람들은 서로 평등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합니다. (...)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며, 어떤 사람은 미천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하며,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주장사 따라...

62 혜해 선사의 '공력'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about '공력' (effort) and Buddhist teachings. Includes characters like 혜해 and 慧海, and various scenes of teaching and reflection.

혜해 선사(?-?) : 당대(唐代) 스님으로 산서성 건주 출생. 마조 도일의 법을 이었으며 저술로 <문도입도요문호> <대주선사어록> 등이 있음.

네터즌 교리문답

깨달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깨달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혹은 불교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신비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과연 깨달음은 그럴까요? (불학자)

답1: 깨달음은 글자 그대로 마음의 느낌입니다. 단지 느낌이 좀 강렬하면 좋으나 그렇다고 꼭 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몰랐던 어떤 진실을 듣고 영혼이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한자로 각(覺)이나 오(悟)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각(覺)은 일상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대각(大覺)이라고 말할 때는 우주의 이치를 크게 깨달았을 때 씁니다. 오(悟)는 나오(悟)지에 마음(心)자가 붙은 것입니다. 마음에 대하여 크게 깨달았을 때는 대오(大悟)라는 말을 씁니다. 부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주의 이치도 크게 깨달았으므로 대각(大覺)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悟)라고 말하면 각(覺)이라고 말하면 어쩌되었든 깨달음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불교는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수행(修行)의 귀결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그 자체만으로 능히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가볍게 아는 것(知)과 다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알아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어떤 것은 체험으로 배우고 어떤 것은 선배에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체험으로 아는 것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선선원)

답2: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달았다고 부처의 마음에 모두 조복했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달았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 허가를 받고 등교할 준비가 된 것일 뿐입니다. (도래미)

답3: 깨달음에 결합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체험, 지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솔직하고 순박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어도 들어올 수 없지만 현명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문은 일정한 처소가 없어서 아무 곳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두 큰 바다를 들어와서 한맛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부처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아림이 정지권을 장애합니다. (개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5 in specific cells.

상식퍼즐

- 1. 사미가 지겨워 할 10가지 계율로 근 계율이라고도 함 2. 업동의 심한 추위 3. '물안경'의 한자 말 4.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 5.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얻게 될 6. 불건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조세.

정답은 26면에

세로

- 1.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사방에 서있던 나무 7. 국가 비상사태시 행정·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것 8. 민간에서 구술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9. 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노래 10.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11. 가수의 노래 없이 악단의 연주로만 된 대중음악 12. '대나무가 곁을 따라 쫓겨가는 형제'를 나타내는 고사성어 13. 풍류의 다른말 14. 상반신은 사람의 몸이며 하반신은 불고기인 상상의 동물 15. 지나치게 크거나 부풀려짐.